

내가 계획하는 목장 설계



대경목장대표, 고성군의회의원

김 동 봉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이 강대국들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으로 내일을 점치기 힘든 상황으로 급변하는데 대내적인 주변 여건마저 날로 심각해져 간다. 축산업중에서도 낙농업의 위치가 매우 크려니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나 국민의 건강관리 면에서 어느 다른 분야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 업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 하다.

천정 모르게 치솟는 인건비 상승도 낙농 경영에 큰 압박을 주거나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품을 사기가 아예 불가능 해 지는 상황으로 변한다.

매일 매일 연속되는 통상적인 관리작업이야 가족 노동으로 해결한다치더라도 일 년에 몇 차례 조사료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노동 인력마저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 낙농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 또

통상적인 낙농관리 작업이라해도 생력화(省力化)된 시설 개선이 되지 않는한 날로 노령화 되어가는 인력으로는 그 중노동을 감당해 내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축산이 그렇듯이 낙농도 가족경영 단위의 적정규모로 전업화 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상태로 10여두 안팎의 영세한 부업낙농이나, 부동산 투기의 대기성 낙농이나, 아니면 몇 몇 대규모 기업목장 형태로서는 안정적인 낙농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설개선으로 적정규모 사육으로 경영 합리화가 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시설개선에도, 규모의 확대에도 막대한 자본이 든다. 일반 영세 낙농가는 그런 여유 자본이 없

으며 가솔들의 치닥거리에 허우적거리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고금리(高金利)의 타인 자본으로서의 시설개선, 규모확대는 흑자경영이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의 낙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런것 뿐이 아니다.

집유방법 개선과 검사의 공영화, 나아가 낙농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낙농진흥법은 지금 어디서 낫잡을 자고 있는지 알 수 없거니와 낙농가의 생산비 지출을 덜어줄 사료와 낙농기자재에 대한 세제(稅制) 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쟁쟁거리는데 원유(原乳)대는 2년전 고시한대로 한 푼도 오르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고 있다. 참 딱한 노릇이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한국낙농이 몰락할 날도 멀지않은 느낌이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앞될 시점에 이르렀다.

먼저 관계당국이 새로운 시각으로 낙농업의 장래를 걱정해야 할것이며, 낙농가들도 자기 이익에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를 위한 새로운 자기 반성과 함께 살아 남기 위한 용단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여 진다.

필자는 일찌기 낙농을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2천년대의 낙농에 도전장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 추진 방향을 여기 제시해 본다.

먼저 우리집 가족노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육 규모를 몇 두로 결정하느냐는 문제에서 50두를 설정 했다. 이 50두는 항시 착유할 수 있는 착유우 30두와 건유우를 비롯한 후보 육성우 20여두다.

이러한 규모를 사육하는데는 시설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1년여에 걸쳐 30두용 계류식 우사 75평, 건유우 및 육성우사 40평, 사일리지

100톤 들이 사이로, 건초나 짚을 저장할 35평의 창고, T.M.R사료 급여를 대비한 180평의 운동장 시설을 갖추었다. 이 운동장에 기계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더위에 대비한 현대식 샤워시설을 마련했고, 계류식우사에는 분뇨자동이송기(반크리나)를 설치 했다. 착유 시설도 한 사람이 4유니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생력화(省力化)된 파이프 라인시설을 도입 했다. 이들 시설은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거의 자력으로 했으니깐 그 비용도 훨씬 절약되었지만 적잖은 타인 자본도 투입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육에 따른 기본 시설 없인 항구적인 낙농을 하기 어려우며, 관리노동에 몸이 먼저 지치면 낙농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결단에서 단행 되었다.

이러한 시설개선에 앞서 종축개량을 먼저 실시해 왔기에 기초등록우는 7두 나머지는 모두 본, 혈통 등록된 소들로 산유량이 1만kg 이상인 소가 2두, 7~8천kg 이상의 소가 대부분이며 6천kg대의 소도 아직 8두가 있다. 현재의 평균 산유량이 7천3백kg 이지만 멀지 않은 날 8천kg를 상회할 목표로 계속 정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1만kg이 넘는 소를 가득 채울 목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필자의 낙농 성공을 위한 구상이나 계획은 아직도 완전 정복한것은 아니다. 시설투자에 지출이 과다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낙농의 승부는 1~2년에 끝낼 일이 아니기에 뚜렷한 확신을 갖고 연구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다. 이 길만이 세계 자유무역경제체제속에서의 한국 낙농가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